# 국제 금융 속보

국제금융센터
Flash News
2021. 11. 30
해외동향부 (제 6065)

■ **주요 뉴스: WHO, 오미크론 위험을 경고, 전문가들은 경제 영향 관련 상반된 의견 제시**

○ 미국 대통령, 오미크론으로 인한 추가적인 여행금지·봉쇄는 불필요

○ 연준 의장,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

○ ECB 부총재, 새로운 코로나 변이 출현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증폭

■ **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오미크론 관련 우려가 완화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강화**
**주가 상승[+1.3%], 달러화 강세[+0.1%], 금리 상승[+3bp]**

○ 주가: 미국 S&P500 지수는 바이든 대통령의 봉쇄 조치 불필요 발언 등이 견인
유로 Stoxx600 지수는 에너지 및 금융 관련주의 강세 등으로 0.7% 상승

○ 환율: 달러화지수는 지난 주 금요일 하락이 과도했다는 평가 등이 반영
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.2%, 0.1% 하락

○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이 배경
독일은 11월 소비자물가의 큰 폭 상승 등으로 2bp 상승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191.5원, -2.0원) 0.2% 하락, 한국 CDS 보합

| | | 11/29일 | 11/26일 | 전일대비 |
|---|---|---|---|---|
| 주가 | 미국 | 4,655.3 | 4,594.6 | 1.32% |
| | 유럽 | 467.24 | 464.05 | 0.69% |
| | 중국 | 3,562.7 | 3,564.1 | -0.04% |
| | 일본 | 28,284 | 28,752 | -1.63% |
| | 한국 | 2,909.3 | 2,936.4 | -0.92% |
| 환율 | 달러지수 | 96.18 | 96.09 | 0.09% |
| | 유로화 | 1.1291 | 1.1317 | -0.23% |
| | 엔화 | 113.53 | 113.38 | -0.13% |
| | 위안화 | 6.3882 | 6.3933 | 0.08% |
| | 원화 | 1,193.0 | 1,193.3 | 0.03% |

| | | 11/29일 | 11/26일 | 전일대비 |
|---|---|---|---|---|
| 국채금리 10y | 미국 | 1.50% | 1.47% | 3bp |
| | 독일 | -0.32% | -0.34% | 2bp |
| CDS 5y | 한국 | 20bp | 20bp | 0bp |
| | 중국 | 52bp | 54bp | -2bp |
| 위험지표 | EMBI+ | - | 415 | - |
| | VIX | 22.96 | 28.62 | -19.78% |
| 원자재 | WTI유 | 69.95 | 68.15 | 2.64% |
| | 구리 | 434.8 | 428.4 | 1.49% |
| | 금 | 1,784.6 | 1,802.6 | -1.00% |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종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## 금일의 포커스

■ **WHO, 오미크론 위험을 경고. 전문가들은 경제 영향 관련 상반된 의견을 제시**

○ 세계보건기구(WHO)는 오미크론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, 이에 점차 많은 국가가 봉쇄 조치를 단행하고 있는데, 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. 다만 보건 측면에서 오미크론의 영향을 논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을 피력

○ 한편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관련 서로 다른 의견을 표명. 신용평가사 무디스와 피치 등은 오미크론으로 성장이 둔화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. 특히 연말 소비증가 시기에 피해가 증폭될 수 있다고 경고

○ 반면 투자은행들은 주요국의 코로나 대응 능력이 발전하고 있다면서, 기존 경제 전망을 그대로 유지. UBS의 Paul Donovan은 여행 부문이 피해를 겪을 수 있지만, 전체 경제에서 해당 부문의 비중은 크지 않다고 지적

○ Goldman Sachs의 Daan Struyven도 봉쇄조치가 시행될 때마다 관련 충격은 감소했다고 언급. 또한 오미크론 영향을 반영할 경우, 2022년 글로벌 경제성장은 당초 예상보다 소폭 둔화에 그칠 것이며, 2023년에는 다시 개선될 것으로 전망

## 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**미국 대통령, 오미크론으로 인한 추가적인 여행금지·봉쇄는 불필요**

○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경계해야 하지만 공황(panic)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. 또한 정부는 새로운 코로나 변이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봉쇄 조치보다는 백신 개발 및 접종에 초점을 둘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

■ **연준 의장,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**

○ 파월 의장은 수급 불균형 등으로 해당 전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. 다만 고물가 상황이 내년에는 다소 진정될 것으로 기대

■ **ECB 부총재, 새로운 코로나 변이 출현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증폭**

○ 데 귄도스 부총재는 불확실성 증가를 예상하면서도, 역내 높은 백신 접종률이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고 주장. 드 갈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오미크론 사태가 향후 경제 전망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

■ **독일 11월 소비자물가, 전년동월비 6% 올라 집계 시작된 1997년 1월 이후 최고치**

○ 이번 결과는 기저효과, 에너지 가격 상승, 작년의 일시적인 부가세 인하, 원자재 부족 등의 다양한 원인에 기인. VP Bank의 Thomas Gitzel은 당분간 높은 수준의 소비자물가 지속이 예상되나 하방 압력도 점차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

■ **유로존 11월 경기체감지수, 전월 대비 하락. 코로나 19 확산 등이 영향**

○ 유럽위원회에 따르면, 해당 지수는 117.5로 전월(118.6) 대비 하락했으며 시장 예상치(117.5)에 부합. 소매 및 건설업 부문은 호조를 나타냈지만, 소비자신뢰는 부진. 코로나 19 감염이 재차 증가하면서 향후 경기둔화 우려 등이 심화

■ **일본은행 총재, 수개월 이내에 코로나 영향을 극복하고 성장세 회복할 전망**

○ 구로다 총재는 기후변화 관련 장기 대응을 위해서는, 필요한 자본을 지속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. 한편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

■ **JP모건, 2023년 브렌트유는 배럴당 150달러 상승 예상. 생산능력 부족 등이 원인**

○ OPEC의 실질적인 추가 증산 능력은 일일 200만배럴로 시장 추정치(일일 400만배럴)를 크게 하회한다고 지적. 이에 2022~23년 유가 급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. 다만 장기적으로는 배럴당 80달러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기대

## 주요 경제지표

■ **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11/29 현지시각 기준)**

○ 미국 10월 잠정주택판매(전월비): 7.5%, 9월(-2.4%), 예상치(1.0%)

○ 미국 11월 댈러스 연은 제조업지수: 11.8, 10월(14.6), 예상치(-)

○ 일본 9월 소매매출(전년동월비): 1.1%, 8월(2.8%), 예상치(-1.6%)

■ **주요 경제 이벤트(11/30 현지시각 기준)**

○ 연준 파월 의장 및 클라리다 부의장 연설, 미국 9월 FHFA 주택가격지수,

○ 미국 9월 S&P/케이스-실러 주택가격지수, 11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

○ 미국 11월 시카고 PMI, 유로존 11월 소비자물가, 독일 11월 실업률

○ 중국 11월 국가통계국 제조업, 비제조업 PMI, 일본 10월 산업생산

##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**미국 주식시장, 투자자 예상보다 더욱 취약할 가능성 - Financial Times**
(Markets are more fragile than investors think)

○ 지난 10년 간 증시는 이례적으로 긴 상승장이 진행 중. 하지만, 투자자들은 과거 몇 차례 급격한 조정과 지난 주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급락 등과 관련해 투자회사인 웰링톤이 최근 발표한 시장 취약성에 대한 보고서를 주목할 필요

○ 웰링톤은 핵심문제로 유동성 측면의 수요와 공급 불일치를 지적. 그 동안 고빈도 매매 기반의 알고리즘 거래 및 산업구조 전체를 포함하는 패시브 펀드가 증가하여 시장 혼란 시, 대규모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. 이는 수급 불안정에 따른 주가 급락의 단초를 제공

○ 아울러 위기 때마다 중앙은행의 개입으로 생긴 투자자 신뢰는 인플레이션에 취약. BofA의 Benjamin Bowler는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 역할을 제약하고, 저가매수(buy-the-dip) 움직임이 중단되면 변동성 확대가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

■ **미국 국채시장,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신호를 발신 - 블룸버그**
(Inflation Bonds Are Betting on Team Transitory)

○ 10월 근원 개인소비지출(PCE) 물가가 4.1%로 30년래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정치권에서도 고물가 문제를 지적. 그러나 채권시장은 근원 소비자물가가 향후 30년간 장기 평균인 2.2%에서 1%p 이상 상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

○ 30년물 물가연동채권(TIPS)과 국채의 수익률 차이가 2.32%로 금융위기 시기보다 낮아 향후 물가상승 기대가 높지 않음을 시사. 또한 최근 필라델피아 연준 설문조사에서도 다수의 전문가들은 내년 물가상승 둔화를 예측

■ **연준의 양적완화, 위기 극복 수단이라는 인식에 재검토가 요구 - Financial Times**
(The economic lure of alternative worlds)

■ **오미크론 사태, 국경 봉쇄 확대 시 글로벌 경제성장이 둔화될 우려 - 블룸버그**
(Economists Game Out How Omicron Will Hurt the Global Recovery)

■ **바이든의 휘발유 시장 개입, 에너지와 환경 정책 간 심각한 부조화를 반증 - WSJ**
(Biden's Great Gasoline-Price Contradiction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28, E-mail jsjeong@kcif.or.kr